

#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김 영 주 \*

## 目 次

- I. 머리말
- II. 藥泉의 生涯와 學問 態度
- III. 藥泉의 文學論
- IV. 結論

## I. 머리말

漢文學史에서 17세기를 蠢動한 復古主義는 模倣과 剽竊의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18세기 이후의 주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단 내부에는 문단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鄭澈·金萬重·金春澤 등의 國文詩歌에 대한 호의에서 엿보이는 朝鮮的인 創作傾向의 胚胎와 金昌協·金昌翁 등에 의해 전개되는 寫實主義文風의 유행으로 規範에서 벗어난 性情과 自然物象에 대한 관심의 촉발, 眞의 추구, 法古創新에 의한 朝鮮風의 추구가 그 예이다. 그러나 문단의 움직임을 도출하는 과정이 몇몇 黨派와 學脈만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한문학의 실상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우리 한문학사에서 조선후기는 작가 개인의 창작경향과 함께 黨派, 學脈, 血脈의 理念과 學風, 情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의 문학이론 연구에서 理念集團과 認識集團, 血緣集團의 공유부분을 도외시한 연구는 그 자체에 이미 모순과 불완정함이 내재된다 할 수 있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이러한 시대문학적 특징에 착안하여, 본고는 教條的 朱子主義의 桎梏에 저항하며 다양한 학문의 수용을 통해 혼란한 정치현실과 민생의 안정, 역사인식에서의 민족적 관점의 제시, 당대 한문학의 병폐를 개선하여 이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實學의 또 한 母胎로 기능한 少論系 文人智識人들의 文學理論을 고찰하여 조선 후기 한문학의 일면을 새롭게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藥泉 南九萬(1629~1711)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조선 최초의 陽明學 수용자로 지목되는 南彦經을 從高祖로 하며 주자학에 비판적이던 朴世堂·朴泰輔·崔錫鼎·崔昌大 등과 交遊하였고, 李世龜와 함께 民族主義的 認識에 기초한 歷史地理觀을 나타냈다.

정치적으로는 少論의 영수로서 인재 등용에서의 地域差別 철폐와 科擧制의 개선, 量田說의 주장·軍政劃一案 등을 통한 국정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문학적으로는 ‘文藝’로서의 文章의 가치를 재고하여 ‘道文相須論’을 전개하고, 창작에서의 ‘自得之妙’를 강조하며 文學典範에 대한 摹擬的인 학습 경향을 비판하여 특정한 전범의 설정을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고대 문학 특히 『詩經』의 가치를 再考하여 우리 民謠와 時調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漢譯하는 작업을 통해 이후의 朝鮮的인 作風 추구의 根原的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그의 國防思想<sup>1)</sup>과 政治思想<sup>2)</sup>, 歷史地理에 대한 연구<sup>3)</sup>가 이루어졌을 뿐, 그의 學問思想과 文學理論에 대한 연구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본고는 약천의 학문사상과 문학이론 연구를 통하여 17~18 세기의 문단에서 차지하는 그의 문학적 위상을 조명하여 이 시기 문단의 또 한 흐름을 규명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sup>4)</sup>

1) 姜信燁, 「南九萬의 國防思想」, 『民族文化』 14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2) 姜信燁, 「南九萬의 政治思想」,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歷史學論叢』, 민족문화사, 1993.

3) 朴仁鎬, 「南九萬과 李世龜의 歷史地理研究」, 『歷史學報』 138집, 역사학회, 1993.

4) 본고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한 『藥泉集』을 텍스트로 하여 南九萬의 學問思想

## II. 藥泉의 生涯와 學問 態度

### 1. 藥泉의 家系와 生涯

南九萬(1629~1711)은 호가 藥泉 또는 美齋, 자는 雲路이다. 본관은 宜寧으로 開國功臣 南在의 후손이다. 부친은 贈贊成 南一星이며, 숙부 南二星(1625~1683)은 宋俊吉(1606~1672)과 함께 『語錄解』를 증보·간행했으며 文章에 능하였다.

藥泉 一家는 湖西의 結城에 살았다. 그가 십여 세 되던 해 京師로 이주하였는데, 경사의 名士들이 그의 學識에 탄복하여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sup>5)</sup>

1651년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1656년에 別試로 登第하였다. 당시는 孝宗이 인재 등용에 힘을 기울일 때였는데, 약친이 假注書로써 임금의 뜻에 부합하였다. 이런 이유로 典籍·司書文學이 되었다. 書筵을 출입하던 贊善 宋俊吉과 進善 權認가 약친의 賢明함과 文章에 감복하여 깊이 推與하였다.<sup>6)</sup>

공은 사람됨이 剛正하여 義를 좋아하고 理를 보는 것이 분명하였다. 微官일 때부터 과감히 말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고 宰相이 되어서는 더욱 임금의 면전에서 時事를 논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大臣은 마땅히 格君心을 우선해야 한다.”

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비는 오직 한결같이 이것을 성취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sup>7)</sup>

과 文學論을 검토하였다.

- 5)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19면; 公少家湖西之結城. 年十餘來京師, 京師諸名士, 咸服公文識, 聲名日廣.
- 6) 崔奎瑞, 「致仕奉朝賀藥泉南公墓表」, 『良齋集』 권11(『叢刊』V.161), 209면; 入春坊, 與贊善宋公浚吉·權進善認同周旋, 二公每稱直講官.
- 7)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20면; 公爲人剛正, 好義而見理明, 自其爲小官, 名爲敢言, 及居相位, 益犯難論事, 嘗曰, 大臣當以格

약천은 집안이 寒素하여 籍授가 없어서 자신의 특출한 材識과 剛直한 인품으로 清要職에 선발되었다. 그 예로, 孝宗이 麟坪大君의 초상에 직접 술을 올리고자 諫官의 반대를 물리칠 때 약천만이 연이어 疏章을 올려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吏曹의 弘文錄에 천거되어 校理가 되었다. 또 肅宗의 즉위년(1675)에 福善君 李栴과 福昌君 李楨이 임금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자 이들로 인해 나라가 흉하게 되리라는 말을 하여 임금의 노움을 사서 체직된 일이 있다. 이후, 刑曹判書·漢城左尹에 제수되어(1678) 재상인 尹鑣·許堅을 탄핵하다가 南海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1680년의 庚申大黜陟으로 허견과 이남 등이 역모로 몰리고 실각하자 가장 먼저 불려서 都承旨에 제수되고 이후 副題學·大提學을 역임하였다.

약천은 時事를 처리할 때, 事案을 꼼꼼히 살피고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선택하였고, 시행할 때는 반드시 實用을 강조하였다.<sup>8)</sup> 또 法을 적용하는 데는 엄하였지만 가혹하지 않았다. 兵曹判書가 되었을 때 吏胥들이 오래도록 錢布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그들을 죽이는 대신 그 보상을 책임지게 하여 한 해만에 창고가 차서 넘칠 정도가 된 일이 있었다.

공은 政務를 보살필 때, ‘誠’에 근본 하여 실행하는 것이 條理가 있고 法을 엄격히 적용하되 가혹하게 하지는 않았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精一해야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것의 좋고 나쁨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여, 그 중 좋은 의견을 골라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였고 행하면 반드시 實效가 있었다.<sup>9)</sup>

君心爲先, 又曰, 士惟成一箇是而已.

8)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22면 ; 公家居廉儉, 性好學, 至耄老, 貫通經史而務致於實用.

9)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20면 ; 公爲政, 本之以誠壹, 行之有條理, 用法嚴而不苛矯, 相稱王, 惟精也, 可以成天下之務, 故於事專務審其利病, 講問於人人而擇其長, 見可而行, 行必有效.

약천은 ‘誠’에 근본하여 “오직 精密해야 天下의 일을 이룰 수 있다.”<sup>10)</sup> 라고 하며 일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자문하여 좋은 의견을 실행하였다. 湖南賑恤御使(1661)와 嶺南賑恤御使(1662)로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였고, 承旨가 되어서도 民事를 중시하여 정승이라도 백성을 괴롭히는 이는 반드시 처벌하였다. 咸鏡道 觀察使(1671)가 되어 그 지역에 儒風을 진작시키고 국경 방비를 강화하였다. 咸興城을 개축할 때는, 직접 부서진 성곽과 무너진 보루를 살펴보고 수리를 지시하였다. 또한 국경의 형세를 살펴보고 茂山府의 설치와 甲山·吉州간의 새로운 길을 열고 四郡의 폐지를 상소하였는데, 그가 올린 지도와 상소를 본 顯宗이 그의 재주와 정성에 감탄하여 임기를 마쳤는데도 일년을 연장하여 국경 수비를 완비하게 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약천은 賦役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균등한 부역의 실시를 주장하고, 明經科를 개선하여 口讀만으로 인재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經典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大司成에 임명되자, 士習의 시정을 위하여 學制를 정비하고, 師生의 매월 세 차례의 講會를 정례화하여 學風 진작에 힘을 기울였다.

이후 右議政(1684)·左議政을 거쳐 領議政(1687)에 배임되었다. 그러나 張嬪의 重刑을 주장하던 金春澤·韓重爨 등의 老論에 반대하여 輕刑을 주장하다가(1701) 肅宗의 張嬪 賜死 결정으로 낙향한다. 그가 낙향할 때, 숙종은 그에게 서울에 머물기를 부탁함과 아울러 음식물을 하사하는 성의를 보였다. 또 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의원을 보내어 약을 짓게 하고, 1711년 3월 17일, 약천이 廣州의 집에서 죽자 棺材 등을 하사하였다.<sup>11)</sup>

10)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20면 ; 惟精也, 可以成天下之務.

11)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V.183), 322~323면.

약천의 사승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부친인 南一星에게 숙부 南二星과 함께 배웠고<sup>12)</sup> 이후 李明漢에게 수학하는 정도가 나타난다.<sup>13)</sup> 그 외에 박세당의 장인인 尹宣擧에게 수학한 기록<sup>14)</sup>이 있다.<sup>15)</sup> 그의 제자는 崔錫鼎·崔奎瑞·朴泰輔 등 100여 인에 달하였다.<sup>16)</sup>

교유 인물로는 朴世堂·朴世采, 李敏叙·李敏迪 형제<sup>17)</sup>, 李世華, 李時顯, 尹拯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약천의 교우관계가 인척간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와 절친한 박세당은 그의 처남이며 박세당은 또 박세채와 집안간이다. 그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이민서는 그의 아들인 南鶴鳴의 丈人이다. 그외에 吳道一·柳尙運 등은 장희빈 처벌에 대해 그와 입장을 함께 한 黨人이자 交友였다<sup>18)</sup>.

## 2. 實證的·折衷的인 學問 態度

### 1) 王學的 家學傳統에 의한 開放的인 學問 態度

약천의 學問思想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 최초의 陽明學 수용자<sup>19)</sup> 南

- 
- 12) 「先考通訓大夫行金城縣令淮陽鎮管兵馬節制都尉府君行狀」, 『藥泉集』 第25(『叢刊』 V.132), 399면; 弟吏部公, 小與不肖孤同學於公.
- 13) 南鶴鳴, 「先考遺事」, 『晦隱先生文集』 권4(『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경인문화사), 364~365면; 少與李公敏迪兄弟, 會於拱北亭白江宅課業, 一日, 適歸家, 白江見留藁, 歎賞曰, 觀此文筆, 精神貫盈, 前頭名位, 決非吾兒輩之可企及也.
- 14) 「魯江書院奉安祭文·南九萬」, 『魯西遺稿』 附錄·下(『叢刊』 V.120), 541면; 身屈道伸, 有辭來世, 逮于魯西, 變世載德, 既傳詩禮, 且從問學.
- 15) 尹舜擧의 『堊土集』에 수록된 祭文과 尹文擧의 『石湖遺稿』, 등에 朴世采·李敏叙·尹拯 등의 祭文이 있는 것으로 보면 약천과 절친하거나 교유가 있던 인물 대부분이 尹宣擧 형제의 문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6) 崔昌大, 「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 『昆侖集』 권17(『叢刊』 V.183), 322면; 及門之士百餘人, 昌大先公及崔公奎瑞, 朴公泰輔, 既顯名當世, 其餘成業者衆.
- 17) 南鶴鳴, 「先考遺事」, 『晦隱先生文集』 권4(『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경인문화사), 364면.
- 18) 南鶴鳴, 「先考遺事」, 『晦隱先生文集』 권4(『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경인문화사), 382면; 甲戌事擧世譁然攻之, 當時知之者, 惟西溪朴公, 及尹相國趾完·柳相國尙運·吳判書道一而已.
- 19) 尹南漢, 『朝鮮時代의 陽明學 研究』, 집문당, 1982, 137~138면 참조.; 윤남한은 李

彦經(1528~1594)이 그의 從高祖라는 것이다. 남언경은 徐敬德·李滉의 문하에 왕래하고 成渾·李珥와 從遊하였다. 그는 李滉을 비롯한 名流들과 心性學의 討論을 전개하고, 東·西黨論에서도 成渾·李珥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sup>20)</sup>

남언경의 陽明學의 학문 경향은 어떻게 계승되는가? 南彦經의 손자이며 藥泉의 從祖父인 南好學과 張維(1587~1638)는 同桴간이다. 특히 장유는 조선의 대표적 양명학 수용자로 거론 되기에 그 연계를 추측할 수 있다. 또 그와 함께 세칭 '四友'로 거론되는 崔鳴吉(1586~1647)<sup>21)</sup>은 병자호란 때 대의명분 보다는 현실적인 主和論을 주장한 인물로 일찍부터 그의 陽明的 학문경향이 언급되었다. 그의 손자 崔錫鼎(1646~1715)과 증손자 崔昌大(1669~1720) 역시 이러한 학통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變通論'을 국가운영원리로 제시한 바 있다.<sup>22)</sup>

공은 평소에 天人과 性命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종일 책을 보고 沈潛하여 한결같이 躬行·心得을 우선하였다. 立志와 勅身에 대해 공정히 생각하느라 매우 피로하고 몹시 초췌할 정도였지만 簡嚴과 介潔함으로 자신을 단속하였다. 비록 德과 관련되는 것이면 비록 적은 것이라해도 타고난 자질이 道에 가깝지 않은 경우가 드물었다.<sup>23)</sup>

能和·李丙燾를 비롯한 先學들의 論考와 日本人 高橋亨·阿部吉雄의 論考에서도 다같이 南彦經을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로 소개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그는 『宣祖實錄, 27년 甲午 7월 癸巳條』의 남언경의 문인 李瑤의 請對記事 가운데 “朝鮮最初治陽明學者乃南彦經·李瑤也.”라고 한 점을 예시하였다.

- 20) 尹南漢, 前掲書, 139면 참조.; 主氣學派의 淵源이라고 할 수 있는 花潭學派에서 남언경과 관련된 學人들은 당시로서는 新思潮인 明의 白沙學이나 陽明學, 整菴學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朝鮮中期의 花潭學派의 특징의 하나인 다양한 신분계층의 사람 즉, 宗室·庶孽·庶民層이 많이 포섭되어 있어 兩班 계층을 주로 하는 경향 가운데서 보다 開放的이고 近民的 학문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21) 최명길의 祖母 南氏가 남언경과 堂內間인 南尙質의 딸이다.(尹南漢, 前掲書, 140면 참조.)
- 22) 拙稿, 「昆侖 崔昌大의 修辭論 研究」, 『동방한문학』 24집, 동방한문화회, 2003, 120~122면 참조.
- 23) 南鶴鳴, 「先考遺事」, 『晦隱先生文集』 권4(『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경인문화

이것은 아들인 南鶴鳴이 약천의 遺事를 기록한 것이다. 이념적인 天人論·性命論에 대한 것보다는 實踐躬行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趙泰耆(1660~1723)가 咸慶道 御史로 나갔을 때 慶興의 座首가 자신의 고을에 폐단이 없는 것은 이전에 약천이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와서 그 고을의 폐해를 모두 變通하여 준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일화가 그의 실천적 학문경향을 입증해준다.<sup>24)</sup>

藥泉의 처남이며 대표적인 주자학 비판론자인 朴世堂(1629~1703)은 약천과 어린 시절부터 20여년간을 함께 기거하며<sup>25)</sup> 南二星(1625~1683)과 학문에 대한 논쟁을 즐겼다.<sup>26)</sup> 이 과정에서 약천과 박세당이 양명적 경향이 짙게 배인 그의 一門의 학문적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sup>27)</sup> 또한 약천의 제자인 朴泰輔(1646~1689), 鄭齊斗(1649~1736) 등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면, 이들이 공유하는 일부가 바로 陽明學의이거나 朱子學 批判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약천은 당시에 널리 읽히던 『書傳』의 蔡沈의 편명 가운데 「虞書」를 馬融·王肅·鄭玄 등 諸家の 의견을 참고하여 「虞夏書」라고 하는 것이 타당

사), 385~386면; 公居常不談天人性命, 終日看書沈潛, 一以躬行心得爲務, 夷考其立志勅身, 勤勞盡瘁, 簡潔自守, 雖於小德出入者, 鮮不但天資近道而已.

- 24) 南鶴鳴, 「先考遺事」, 『晦隱先生文集』 권4(『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경인문화사), 373면; 趙判書泰耆嘗自北關御史還言, 到慶興, 座首告御史曰, 此邑無一弊端, 而有一故事. 南相公按節時, 盡問弊端, 皆變通.
- 25) 「題林清道淨所藏西溪朴兄手寫詩第後」, 『藥泉集』 第27(『叢刊』 V.132), 458~459면; 西溪朴先生, 余之弟兄也. 時同居家食同爨二十餘年, 每得一卷書作一論文, 未嘗不反復質理, 砭刺制定, 以相樂也.
- 26) 「年譜」, 『西溪集』卷22(『叢刊』V.134), 436면; 先生時與夫人弟南相國九萬及其叔父南尙書二星, 辨論文義, 或不相屈, 以至窮日繼夜. 晚年答南相公書曰, 素居以來, 無復昔年辯論之樂, 追思當時, 劇談縱橫, 彌日竟夕, 不自知疲, 雖蠶疎之說, 未足以盡契妙解, 若比餘人言, 茫然不知何謂者, 則誠不翅我洋之耳矣.
- 27) 朴世堂이 教條主義의 으로 치닫는 朱子學에 반기를 들고 독자적으로 經典을 해석하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여 四書三經의 註解를 새로이 하여 『思辨錄』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나 양명학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도 어쩌면 藥泉 一門의 陽明學의 경향의 영향을 입어서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崔永成, 『韓國儒學思想史Ⅲ』, 아세아문화사, 1995, 274면 참조.)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說命·中」에 나오는 ‘數學’의 의미와 「周書·召誥」의 ‘用牲于郊，牛二’에 대한 것, 「周書·洛誥」의 ‘明禋’의 文勢構成, ‘戊辰王在厥邑’의 구절의 위치 문제 등에 대해 諸家の 說을 검토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채용하고자 하였다.<sup>28)</sup>

이처럼 약전은 朱子說이나 특정 학설을 墨守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논리적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그의 천성일 뿐 아니라 實質性을 중시하는 家學 전통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전의 학문 경향은 理念的이라기 보다는 考證的이고 客觀的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東史辨證」<sup>29)</sup>에서 우리 역사의 주요 관심사인 檀君朝鮮·箕子朝鮮·涇水·眞番·首陽山 등에 대해 편견이나 事大主義的 의식의 구속을 벗어나서 客觀的인 考證을 위하여, 『書經』·『三韓古記』·『三國遺事』·『筆苑雜記』·邵康節의 『皇極經世書』·『天運紹統』을 비롯한 『漢書』·『史記』·『唐書』·『通典』·『東國與地勝覽』, 그 외의 中國의 史書 및 諸家說을 섭렵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후기의 역사지리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柳光翼의 『楓巖輯話』,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에서 고증적인 약전의 역사지리설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安鼎福의 『東史綱目』에서도 약전만의 涇水에 대한 논의를 인용하였다. 이처럼 성리학자들의 포퓰리즘의 道德論的인 史觀을 탈피하여 歷史地理의 考證을 통한 약전의 연구방법은 17~18세기의 歷史地理學의 考證的 研究의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0)</sup>

또 약전은 朝鮮의 漢字음을 正音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의 字음이 五胡時代 이래로 夷·夏가 서로 뒤섞이면서 한자의 語音과 字음이 본래의 夏音을 잃고 잘못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朝鮮漢字音은 三韓 이래로 받아들인 중국의 字음이 책자로 전습되어 日用的 語音과

28) 「答崔汝和 癸酉 12월 12일」, 『藥泉集』 第32 (『叢刊』V.132), 544~547면.

29) 「東史辨證」, 『藥泉集』 第29 (『叢刊』V.132), 484~489면.

30) 朴仁鎬, 전계서, 69~72면 참조.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年代·方言의 變易과 상관없이 전래된 正音 그대로임을 주장하며 중국의 음을 존중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음을 제대로 모른다고 한 張維의 견해를 비판하였다.<sup>31)</sup> 일견하기에 이러한 주장은 漢字音의 傳來的 측면에서 논한다면 중국의 것을 존중하는 事大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朝鮮漢字音에 대한 가치를 긍정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自尊的 認識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태도는 문학창작에서 조선의 소리인 民謠·時調 등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것을 漢譯하는 작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 Ⅲ. 藥泉의 文學論

#### 1. 文論

##### 1) 內外交養을 위한 道文相須論의 提示

古今の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은 문장가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시대에 따라 세상과 사람은 달라진다. 문장 역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가 古文論者와 擬古論者로 나뉘게 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옛날에 글을 지은 이유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道가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書冊에 써여 지면 文章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文章이 옛날에 사용될 때도 그러하였다. 시대를 내려와 후대에는 이른바 詞章之文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가만가만히 摹擬하고 假飾하는 것을 스스로 工巧하다고 여겼다. 文人の 文章만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儒學에 종사하는 자라 해도 또한 이러한 행태를 면치 못하였으니 옛날과 떨어진 것이 또한 오래되었기 때문이다.<sup>32)</sup>

31) 「丙寅燕行雜錄」, 『藥泉集』 第29 (『叢刊』V.132), 494면.

32) 「滄溪集序」, 『藥泉集』 第27 (『叢刊』V.132), 449~450면 ; 蓋聞古之制文, 所以記言

약천은 시대와 문장의 변화를 부인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直視하였다. 道가 상실된 후대에 문장창작이 道의 外的 表出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망각한 채 摹擬와 거짓된 修飾을 일삼는 것을 뛰어나다고 여기며 儒學을 배우는자들조차 그러한 풍조에 물든 것을 비판하였다.

일찍이 金宗直(1431~1492)은 文章이 經術에서 나온 것이며 經術은 文章의 근거가 되기에 양자가 별개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sup>33)</sup> 金邁淳(1776~1840)은 文章의 뛰어난 것은 반드시 華實을 겸하였기에, 道文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면 華·實은 서로 補益될 수 없어서 그 文章의 줄림함을 숨길 수 없다고 하였다.<sup>34)</sup>

약천은 문장 창작의 기본 조건으로 仁義의 蓄積을 강조하였다<sup>35)</sup>. 仁義가 축적되지 못한 사람의 문장은 비록 聲律과 藻繪의 工巧함을 극도로 추구하여 藹然한 문장을 짓고자 하더라도 끝내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內的인 修養이 충실하지 못하기에 그것의 外的 形象인 文章 역시 뛰어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문장을 중요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문장이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 수는 없다[人能重文, 文不能重人.]”고 하였다. 그가 추구한 문장창작의 이상적 경계는 ‘道文一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가 의미하는 ‘文’의 개념이

---

也. 發諸口則爲言, 書諸冊則爲文. 之二者同出而異名, 文之爲用於古者然也. 降而後也, 乃有所謂詞章之文, 竊竊焉摹擬假飾, 自以爲工, 不特文人之文爲然, 雖從事儒學者, 亦有不免於此, 其離古亦遠矣.

- 33) 『尹先生祥詩集序』, 『佔畢齋集』文卷1 (『叢刊』V.12), 413면;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闕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而柯葉之條鬯, 華實之禮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 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公矣, 自古, 以文章鳴於時而傳後者, 如斯而已.
- 34) 『石陵稿自序』, 『臺山全書』冊2 (계명문화사, 1985), 538면; 夫文之雋者, 華實必兼, 本末必具, 本實未足以稱, 而華與末, 又不能以相補, 則其文之拙可知也.
- 35) 『醒翁集序』, 『藥泉集』第27 (『叢刊』V.132), 448~449면; 仁義之人, 其言藹如, 苟非仁義之積中, 其發而爲文章者, 雖極聲律藻繪之工, 求其所謂藹如, 終不可得. ……文之美, 實亦有由於人者, 又可見矣.
- 36) 『醒翁集序』, 『藥泉集』第27 (『叢刊』V.132), 448~449면; 余聞人能重文, 文不能重

‘本末’ 개념의 道學的 次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文은 藝이다.”<sup>37)</sup> 이것은 약천의 ‘文章’에 대한 정의이다. 그는 技藝인 문장에만 골몰하기보다는 經術에 근본 하여 國政의 要諦를 밝히고, 事情을 밝히고, 人間 情緒를 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文’은 內的인 修養의 外的 發露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辭章·文藝의 의미도 아울러 지닌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약천은 修行과 經術, 文藝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道文相須論’을 전개한다.

내 들으니 선비라는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에게 공손한 이외에 또한 學文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內外가 서로 함양되고 本末이 서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혹 물 뿌리고 쓸며, 응낙하고 대답하는 예절에만 전심하고 學文을 힘쓰지 않는다면 識見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善을 밝히는 영역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 혹 기억하며 암송하고 辭章을 짓기를 골몰하는 습관에 부러져서 修行을 독실히 하지 못하면 本源이 확립되지 못하여 몸을 誠實히 하는 지경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그 先後와 終始가 비록 ‘차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진실로 어느 한 가지도 그만둘 수 없다. …… 지금 세상의 선비들은 대략 과거에 이끌려서 고인의 이른바 ‘學文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찍이 聖門之學에 종사하여 六藝의 文章에 통달하고서 도리어 과거공부가 부족한 자를 본적이 있던가?<sup>38)</sup>

人. 以此古人之文爲後世所重者, 必其人有卓犖奇偉之節, 不然文雖美, 不之重也. 又聞文有少而傳, 多而不傳, 其傳者必其人足以重其文, 而不傳者亦必以其文之不能重其人故也. …… 仁義之人, 其言講如, 苟非仁義之積中, 其發而爲文章者, 雖極聲律藻繪之工, 求其所謂講如, 終不可得. 今見公詩文, 眞所謂講如者, 彼世之所稱以文章自命而不知本於仁義者, 顧何得以與於此哉? 繇此言之, 人之能重其文固也. 文之美, 實亦有由於人者, 又可見矣.

37) 『竹西集序』, 『樂泉集』 第27 (『叢刊』V.132), 454면; 用力於有用之文, 雕琢浮華之辭, 不屑爲也. …… 文者藝也. 雖工則亦藝而已矣. 至若本於經術, 明於國體, 說盡事情, 開拓心胸, 是不可以筆墨踐逕論.

38) 『送姜進士亨叔聖復還洪陽序』, 『樂泉集』 第27 (『叢刊』V.132), 445~446면; 余聞爲士者, 入孝出弟之外, 又不可不事於學文, 此內外之交養而本末之相須也. 其或專於洒

약천은 內的인 修養과 그것의 생활에서의 實行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修行에만 골몰하여 學文을 힘쓰지 않으면 識見이 高遠해 질 수 없고 至善의 영역에 나아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記憶하고 暗誦하는 辭章之學에 골몰하여 修行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야기될 폐해 역시 지적하였다. 그는 修行과 學文(文藝의 의미까지 포함)이 서로에게 필요 충분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修行과 文章學을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여 양자간의 긴밀한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 2) 創作에서의 自得之妙의 體得 強調

劉勰은 『文心雕龍·論說』에서 論說이란, 각종 言論·意見을 개괄하여 정밀한 원리로 연구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唐宋代에는 그것이 理論性보다는 점차 說明性과 解說性을 띠게 되었다. 그 대표가 韓愈의 「師說」, 「雜說四首」 등이다.<sup>39)</sup>

우리나라의 「說」 중에도 說明的이고 解說的인 것이 적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說」의 성격이 변화된 唐宋 이후의 것을 모범으로 창작하거나 明代의 擬古注意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說」 가운데는 직접적인 해설보다는 자연물이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事物을 이용하여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比喩的으로 提示하는 技法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다. 약천은 「남시배우기[鈞說]」를 통하여 創作原理에 대한 그의 견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1669년 吏曹參議로 있던 藥泉은 試官으로 牌招되었지만 응하지 않아서 파직되어<sup>40)</sup> 淸州牧使(1670)로 부임하기까지 고향에 머무른다. 긴 여

---

掃應對之節，不勉於學文，則見識未到，無以進乎明善之域，其或役於記誦辭章之習，不篤於修行，則本原不立，無以造乎誠身之地，此其先後始終，雖曰有序，如車兩輪，如鳥兩翼，實不可廢一者也。……今世之士，率以牽於學業，不能盡力於古人所謂學文之事爲言，曷嘗見有從事於聖門之學，貫通六藝之文，而反不足於應舉之業者乎？

39)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0, 335~344면 참조.

40) 『顯宗實錄』, 10년, 4월 癸未條 권16 『朝鮮王朝實錄』 V.36, 626면; 吏曹參議南九萬·校理洪主國·副校理朴世堂·李敏叙, 試官牌不進, 依承傳罷職.

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는 이웃사람에게서 낚시를 배운다. 서울에서 벼슬만 하느라 낚시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기에, 이웃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른다. 그러나 종일 낚싯대를 드리웠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하였다. 이튿날 어떤 촌이 그의 낚싯대의 끝이 너무 굵고 안쪽을 향해 있어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고 뱉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물고기를 제대로 낚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약전은 촌으로 하여금 낚시고리를 두들겨 밖을 향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종일 낚싯대를 물에 던졌지만 또 고기 한 마리조차 낚지 못하였다. 그 이튿날, 또 다른 촌이 나타나서 그의 낚시바늘의 끝이 너무 밖을 향해 있고 굵은 것이 너무 둥글고 커서 물고기의 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약전은 또다시 촌에게 낚시바늘을 두드리게 하여 폭을 좁게 한다. 그리고 종일 낚싯대를 드리워서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낚는다. 다음날, 두 촌이 함께 나타났을 때, 약전은 그들에게 낚시바늘을 보여준다. 먼저 한 촌이 바늘이 너무 구부러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뽀족하게 구부러져 짧게 해서 낚알 하나라도 가를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약전의 바늘은 굵고 뽀족하며 너무 길어서 물고기가 삼켜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뱉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약전은 다시 그의 말을 좇아 바늘을 짧고 뽀족하게 만들어서 물에 드리운다. 그런데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자주 삼켜서 낚시 줄을 잡아 당겨 끌어올리면 바늘을 뺀고 달아나기 일쑤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촌이 촌의 설명이 낚시바늘에 대해서는 옳지만 낚시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약전이 촌이 일러준 方法을 따르자 순식간에 서너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자 촌은 “낚시를 하는 方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낚싯대를 쥐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객이 나의 낚싯대를 쥐고 직접 드리웠다. 낚시줄은 나의 낚시줄이며 낚시

바늘도 나의 뉘시바늘이며 미끼도 나의 미끼이고 앉은자리도 나의 자리였다. 바뀐 것은 다만 뉘시대를 권 사람뿐이었다. 그런데 물고기가 뉘시바늘을 환영하듯 물고 튀오르고 대가리를 나란히 하여 앞을 다투며 잡아당기는 대로 나왔다. 그리하여 광주리를 가득 채우고 소반에 수없이 쌓느라 손 쉴 틈이 없었다.

내가 말하기를,

“뉘시의 妙가 대개 이런 정도였구나!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겠는가?”

객이 말하기를,

“法은 가르칠 수 있지만 妙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만약 가르칠 수 있다면 또 이른바 ‘妙’가 아닐 것입니다. 그만두지 말라고 하신다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께서 제가 가르친 방법을 따라 아침부터 저물 녀까지 뉘시대를 드리우고 精誠과 意思를 여기에 바쳐서 여러 날 여러 달을 익히고 또 익혀서 그것을 알게 되면 손이 또한 그 갈곳으로 가고, 마음 역시 그 생각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自得의 妙’를 터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터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隱微한 점을 이해하고 그 極處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깨치고 두세 가지를 모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를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미혹하게 되는 수도 있으며 혹은 恍然히 自覺하여 스스로도 깨닫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대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뉘시대를 내던지며 탄식하기를,

“홀륭하구나, 객의 설명이여! 이러한 道를 미루어 나아가는 것이 어찌 다만 뉘시질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이러한 부류가 아니겠는가?”

객이 떠난 뒤, 그의 설명을 깨닫고 스스로를 반성하였다.<sup>41)</sup>

이 글은 創作에 대한 약천의 견해를 나타낸다. 作文의 典範을 설정하여 文體나 格式에 맞추어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뛰어난 文章에만 나타나는 自得의 妙는 설명할 수 없다. 적절한 典範의 선정과 오랜 시일에 걸친 精審한 鍊習, 靈感과 直觀의 理解가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에 ‘妙’ 즉,

41) 『釣說』, 『藥泉集』第28(『叢刊』V.132), 473~474면.

‘創新’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靜虛堂集序」에서 洪萬宗의 아버지인 洪叔鑣이 당대 儒冠 중에 제일가는 文藝家라고 숭양하였다. 그 이유는 申欽(1566~1628)·申翊聖(1588~1644) 부자와 달리 嘉靖·隆慶 연간의 前後七子의 氣風을 전혀 숭상하지 않았으며, 韓愈·歐陽修, 洛閩의 여러 학자의 文風을 존중하여 내적으로 純心을 지키고 외적으로 고인의 字句를 模倣하거나 剽竊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42)</sup>

이러한 法古와 創新에 대한 因果論的인 관점을 바탕으로 약천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문장장작의 極端的 追求를 지양하여 양자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折衷의 태도를 주장<sup>43)</sup>하였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어느 일방의 창작경향에 천착하던 당대의 사대부들의 보편적 문장론에 비해 전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2. 詩論

### 1) 詩敎의 再認識

漢詩史에서 17세기는 復古風이 지배하는 시기이다. 鄭斗卿(1597~1673)과 金得臣(1604~1684) 등은 일반적인 學唐의 풍조를 탈피하여 漢魏盛唐 詩를 모범 삼아 17세기 漢詩史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詩經』을 典範삼고 漢魏古詩와 樂府詩의 가치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창작에 반영함으로써 唐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詩史的인 흐름의 이면에 18세기를 향한 새로운 詩學的 움직임이 있었다. 17세기 후반, 金昌協과 金昌翁 등은 眞을 상실한 江西詩와 擬古主義詩를 비판하며 自然과 天機를 강조하였다. 김창협은 詩란 性情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用事의 巧拙·詩語의 雅俗·古今의 구분도 불필요함

42) 「靜虛堂集序」, 『樂泉集』 第27 (『叢刊』V.132), 447면; 今公之文則一遵 韓歐之軌, 洛閩之轍, 絕無申公父子馳騁嘉隆間習氣. 其有內守而不外隨可知也.

43) 「答崔汝和 五月十日」, 『樂泉集』 第32 (『叢刊』V.132), 538~539면; 人之見文字, 各從其意之所向, 凡說若有兩端, 則並舉兩端折其中乃是的當底道理.



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形式이나 格調에 구애되지 않는 호탕한 氣象의 宋詩에서 오히려 性情의 참됨을 볼 수 있다고 하며 唐詩에 경도된 풍조를 비판하였다.<sup>44)</sup>

이러한 詩風 변화의 저변에는 退粟을 뒤이어 나타난 宋時烈 등에 의해 朱子の 문학관이 추송되어 형성된 宋詩 추종의 분위기가 자리한다.<sup>45)</sup> 특히 학자풍의 문인들에 의해 17세기에 溫柔敦厚의 詩教가 다시 강조되었다. 그들은 性情의 자연스런 노출에 있어서 근체시의 형식적 한계를 인식하여 古體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즉 晚唐을 극복하고자 하는 복고풍의 시인들에 의해 歌行體나 樂府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또 다른 양상에서 『시경』이 숭상된 것이다.<sup>46)</sup>

약천은 「琴湖遺稿序」에서 詩에서 익힐 것은 四聲八病說이 아니라 바로 溫柔敦厚의 詩教라고 역설한다.

나는 시에서 이른바 四聲八病이라는 것은 진실로 익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溫柔敦厚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일찍이 대략 들었다. 詩教가 본래 溫柔敦厚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性情을 다스리고 風化를 이루며, 人心을 감동시키고 世程을 돕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요사이 시를 배우는 자들은 혹 淒淸한 것을 工이라 하며 詰屈한 것을 奇라 하고, 혹 雕鏤하는 것을 巧라 하며 枯槁한 것을 高라고도 하니 어찌 詩教가 진실로 그러하게 한 것이겠는가?

지금 公의 詩를 보니 音調에 나타나는 것이 譎而和하고 辭氣에 나타나는 것이 醇而雅하여 무릇 寒苦之語와 橫軼之言이나 刻削之弊와 淡薄之病을 한 번 씻어 없애버리고 때때로 高遠한 데에 마음을 부치고 時事에 대한 胸懷를 일으켜 가슴속에 感憤한 것이 意象의 표면에 은은히 나타나니 또한 일찍이

44) 이종목,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491면 참조.

45) 이러한 九曲歌系の 한시는 경물에 대한 興趣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하는 理趣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 많다. 또 생활공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는 八詠 혹은 十詠詩도 17세기에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작품은 외형상으로 경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흥취를 노래한 듯하다. 그러나 그 이면은 心性과 道體를 자연물과 연관지은 것이 많다.

46) 이종목, 전계서, 490~494면 참조.

溫柔敦厚로 근본 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 까닭으로 듣는 자들이 깨우칠 수 있고 말하는 자들은 죄가 없으니 이 때문에 가히 詩教를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람됨을 살펴 알 수 있는 것이다.<sup>47)</sup>

琴湖李志傑(1632~1702)은 仁祖~肅宗 연간의 인물로 漢詩에 능하여 1천 5백 여수의 한시를 남겼다. 약전은 이지걸과 나이 차가 많지 않고 같이 조정을 출입하면서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의 遺文을 보고 恬靜한 행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약전은 詩教는 性情을 陶冶하며 風化를 達成하고, 人心에 感應하며 世程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시가 修養 뿐 아니라 外的으로 風化·世程의 보조적 수단이며, 외물에 感應한 개인적 情緒의 表出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그의 언급에서 주목될 것은 '感應하는 人心'이다. 이것은 諷刺와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약전의 이지걸의 시를 보고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는 언급은 詩教가 溫柔敦厚의 敎化的 次元에만 머물지 않고 個人 情緒의 形象에까지 그 의미망이 확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詩의 기능 가운데 또 한가지는 時事에 대해 우러나는 鬱憤의 詩的 表出이다. 이것은 시인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事實的이고 眞率하게 형상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약전은 景意의 一致와 物語의 相稱을 창작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 2) 意景一致와 物語相稱의 追求

약전과 朴世堂은 젊은 시절 이십 여 년을 한 집에 살며 책 한 권을 얻거나 글 한편을 지을 때마다 反復하여 質正하고 問難하며 砭刺하여 改定하기를 즐겼다. 박세당이 이십 여 세이던 무렵 楊州의 大灘에서 돌아와 그가 지은 近體詩 一聯을 약전에게 보여주었다.

47) 「琴湖遺稿序」, 『樂泉集』 권27 (『叢刊』 V.132), 449~450면.

물결 따라 나아가는 배는 丹楓아래를 지나려하고 逐水船將紅葉下  
모래밭에 잠든 사람 白鷗와 더불어 한가롭구나. 眠沙人共白鷗閒

나는 이 詩가 景·意가 一致되고 物·語가 相稱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sup>48)</sup>

意와 景(境), 이 두 가지는 예술의 형상에 관한 인식을 이야기 할 때 중요시되는 美學의 범주이다. 역대의 논자들은 意境의 개념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唐代의 王昌齡은 『詩格』에서의 境을 物境·情境·意境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意境을 처음 거론하였다. 그는 意境이 心物의 어울림을 통해 창조된 예술경계라고 하였다. 情·境 또는 意·境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詩作의 근본이며 이것을 기초할 때야 비로소 마음 속에 意境을 형성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후의 司空圖<sup>49)</sup>를 비롯한 南宋의 姜夔<sup>50)</sup> 역시 意와 境의 어울림을 강조하였다. “景意가 一致되고 物語가 相稱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한 언급에서 약천이 이들과 意境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약천이 말하는 ‘景’은 광의의 것으로, 山水·花鳥·宮室 등의 구체적인 物象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갖가지 현실 생활의 景象을 포괄한다. 作家가 현실 생활의 경상을 묘사할 때, 그는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간단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 경상에 대한 자신의 認識과 感情을 그 속에 포함하여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 다른 자연형태의 새롭고 독특한 면모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약천이 말하는 景(境)이다.

약천은 俞命衡의 부탁으로 쓴 「題林碧堂七首稿後」에서 作詩法을 밝히고 있다.

48) 「題林清道淨所藏西溪朴兄手寫詩卷後 庚寅」, 『藥泉集』 第27 (『叢刊』V.132), 458~459면.

49) 「與王鶴評詩書」; 思與景偕, 乃詩家之所尚.

50) 「白石道人詩說」; 意中有景, 景中有意.

내가 俞命衡의 부탁을 받아 그의 先祖妣의 「枕角繡詩」에 서문을 썼다. 俞君이 또 그의 선조인 林碧堂 俞汝舟(1480~?)의 『七繡稿』 한 책을 보여주었다. 맨 먼저 칠언절구 두 수가 있는데 바로 「枕角繡詩」였다. 다음으로는 오언절구 두 수가 써여 있었는데 하나는 집안사람들이 전하여 기록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許筠이 편집한 『國朝詩刪』에서 뽑은 것이었다. 끝에는 오언율시 한 수와 오언절구 두 수가 있었는데 明나라의 牧齋 錢謙益이 편집한 『列朝詩集』에서 뽑은 것이었다. 그 시들 가운데 枕角繡詩가 가장 雅正하다는 것은 내가 序에서 이미 논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전하는 시를 기록한 것과 『국조시산』에 실린 두 수의 오언절구는 그 意趣가 음미할만한 것이 진실로 「枕角繡詩」보다 매우 못하지는 않았다. …… 「枕角繡詩」를 보니 卽事賦懷하여 悠然히自得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sup>51)</sup>

약천은 詩作을 할 때, 바로 사물을 대하여 자신의 興懷를 읊는다면 悠然히自得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審美觀照의 즈음에 直覺을 통하여 感興을 일으킴으로써 意境과 하나되기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王夫之가 景物을 대하여 문득 마음에 떠오른 것 즉, 情意를 따라 시를 쓴다면 자연스럽고 精妙해 질 것이라고 한 말과 흡사하다.<sup>52)</sup>

이상의 분석을 종합한다면, 약천이 말한 意境은 情·境 또는 意·境의 어울림을 통해 작자가 構想할 때 마음 속에 빚어낸 意中の境界 즉 審美境界이다. 또한 약천은 이러한 意境의 일치 즉 物象과 意思의 일치를 作詩의 이상적인 경지로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51) 「題林碧堂七首稿後」, 『藥泉集』 第27 (『叢刊』V.132), 454~455면 ; 余既承俞君命衡之託, 叙其先祖妣枕角繡詩矣. 俞君又寄示林碧堂七首稿一冊, 首書七言絕句二首, 卽枕角詩也, 次書五言絕句二首, 一出家人之所傳錄, 一出東人所編國朝詩刪, 末書五言律一首, 五言絕句二首, 出皇明遺老錢牧齋謙益所輯列朝詩集, 枕角詩詞致最雅正. 余既論著於序矣. 家錄及詩刪所載二絕, 味其意趣, 固與枕角詩不甚遠矣. …… 其視枕角詩卽事賦懷, 悠然自得者, 不啻逕庭矣.

52) 王夫之, 『薑齋詩話』, 「僧敲月下門」; 只是妄想揣摩. 如說他人夢, 縱令形容酷似, 何嘗毫髮關心? 知然者, 以其沈吟「推敲」二字, 就他作想也. 若卽景會心, 則或「推」或「敲」, 必居其一, 因景因情, 自然靈妙, 何勞擬議哉?

## 3) 漢譯을 통한 民謠와 時調의 가치 긍정

약천과 박세당 등은 17세기의 擬古의 作詩 경향을 비판하여 詩作에서 溫柔敦厚의 詩教를 재인식하였다. 그들은 溫柔敦厚에 대해 敎化的 意味를 부여할 뿐 아니라 個人 情緒의 眞率한 表現까지를 의미 범주에 포괄하였다. 그들은 中國詩의 模倣이나 蹈襲 보다는 우리의 부녀와 일반 백성의 정감을 나타내어 지은 시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들은 平鋪穩順의 詩作 원리를 추구하여<sup>53)</sup> 김창협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작시 방법 중, 生僻한 병통과 好奇·好古, 務新不務常의 방법<sup>54)</sup>을 비판하고 平平不奇한 作風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時調와 民謠를 漢譯한 「翻方曲 -11수」<sup>55)</sup>와 俗言을 시형식에 맞춰 읊은 「演俗言四首」<sup>56)</sup>, 그 외에 약천의 손자 南克寬이 朝鮮風의 한시 창작을 시도하여 지은 「續東都樂府 -8수」에서 우리역사의 人物, 地名을 읊는 방법<sup>57)</sup> 등으로 그들의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흔히 ‘平時調는 兩班層, 辭說時調는 平民層’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인식은 조선후기의 時調史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평시조가 兩班社會의 所産이라 하더라도 사랑·離別·늬움·遊興의 氣分 등과 같은 인간의 普遍的 慾望 혹은 情緒를 표출한 작품들은 쉽사리 庶民社會에 吸收되어 본래의 民謠와 同棲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것은 鑑賞을 위한 形詩가 아닌 歌唱 音樂으로 존재해 온 時調의 特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58)</sup>

약천의 「翻方曲-11수」는 忠君·歎老·愛情·別離·婦女怨慕·田家閑

53) ① 「寄子泰輔」, 『西溪集』 권17 (『叢刊』V.134), 341면, ② 「寄子泰維」, 『西溪集』 권17 (『叢刊』V.134), 335면.

54) 安大會, 『18세기 한국한시사연구』, 소명출판, 1999, 37~55면 참조.

55) 「翻方曲」, 『藥泉集』 第2 (『叢刊』V.131), 430~431면.

56) 「演俗言四首」, 『西溪集』 卷3 (『叢刊』V.134), 51면.

57) 「續東都樂府 -8수」, 『夢嚙集』 乾 (『叢刊』V.209), 291~292면.

58) 李東歡,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趨向의 攬頭』, 『韓國漢文學』 3·4합집, 1978~1979, 36~40면 참조.

居 등 제재의 편폭이 넓다. 그 중에 忠君을 제재로 하여 鄭夢周의 「丹心歌」<sup>59)</sup>와 李恒福(1首)<sup>60)</sup>, 孝宗(2首)<sup>61)</sup>의 작품을 漢譯하였다.

- 孝宗

靑石嶺 지나거나 草河溝 | 어디메오

胡風도 참도출사 구근 비는 무슨 일고

뉘라서 내 行色 그려내여 님 겨신되 드릴고

- 南九萬

靑石嶺已過, 九連城何許

胡風寒又寒, 陰雨苦復苦

誰能畫我此行李, 遠寄君王處

위 시조는 병자호란으로 淸에 볼모로 가게 된 봉림대군(뒋날의 孝宗)이 지은 것으로 여기에서의 ‘님’이 父王 仁祖를 가리키는 주지의 사실이다. 약천의 漢譯에는 ‘님’이 ‘君王’으로 直譯되어 있다. 兩班이 지은 시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제재가 ‘戀君之情’이다. 이런 점에서 ‘님’을 ‘君王’으로 번역한 약천의 漢譯은 양반사대부의 普遍的 意識과 情緒를 나타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천 보다 후대인으로 추정되는 權用正은 「東謳」에서 ‘님’을 ‘閨人’으로 번역<sup>62)</sup>하여 男女間의 관계로 이해하여 自己化하였다. 즉 權用正의 漢譯은 시조를 펼쳐 놓고 그것을 漢譯한 것이라기 보다는 閨巷男女의 노래를 듣고 한 셈이다. 이것은 동일한 사물[작품]에 대한 譯者들의 意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약천이 양반사대부적인 意識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평시조와 사설 시조에 흔히 등장하는 歎老歌類의 작품 번역<sup>63)</sup>을 통하여 인간의 普遍的

59) “이몸이 죽어 죽어 一番 고쳐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너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히 一片丹心이야 가슬줄이 이시랴(鄭夢周) → “此身死復死, 百死又千死, 白骨爲塵土, 魂魄復何有.”

60) “鐵嶺 노푼 峯에 쉬여 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를 비 삼아 띄여다가, 님겨신 九重深處에 뿌려 볼가 ㅎ노라(李恒福).” → “咸關嶺高復高, 孤臣冤淚汝, 顧帶爲雨長安歸, 長安宮闕重裏. 儻向君前一靠靠.”

61) “朝天路 보미단 말가 玉河關이 휘단 말가, 大明 崇禎이 어디러로 가시건고, 三百年 事大誠信을 못느 | 슬허 ㅎ노라(孝宗) → “朝天路草塞, 玉河館人空, 大明崇禎今何在, 三百年事大至誠如夢中.”

62) 權用正, 「東謳」; 靑石嶺頭玉河畔, 胡風慘愴雨聲寒, 誰能畫出此行色, 寄與閨人仔細看.

63) “뉘라서 날 늙다ㅎ는고 늙은 이도 이러ㅎ가, 곳보면 반갑고 齧잡으면 우웁니다,

情緒에로의 접근을 나타냈다.

약전은 남녀간의 愛情과 別離에 관한 작품에도 관심을 기울여 漢譯하였다. 남녀의 애정에 관한 작품은 그 主題나 情調 자체도 상당히 感覺의 이고 庶民的<sup>64)</sup>이어서 民謠의 세계에 근접 혹은 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無名氏

⑩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울고	征馬啼欲去, 佳人啼欲留
夕陽은 재울 넘고 갈길은 千里로다	夕陽落已盡, 客路千里悠
져 님아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흐리를 啣아라	佳人且收淚, 吾魂消幾流

위에서 제시한 작자불명의 시조는 7편의 漢譯이 발견된다.<sup>65)</sup> 이 시조는 약전의 번역 뿐 아니라 任珽(1694~1750)<sup>66)</sup>·申緯(1769~1847)<sup>67)</sup>·李裕元(1814~1888) 등에 의해서도 번역되어 그 인기가 꽤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民間歌謠로도 변형<sup>68)</sup>되어 근세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다.<sup>69)</sup>

이러한 時調·民謠·俗言의 漢譯, 나아가서는 민요취향의 시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歷史的 혹은 文學史的 요

春風에 훗는는 白髮이야 님들 어니 흐리오”(李仲集) → “誰謂余爲老, 老者乃能如此耶, 看花笑自發, 把杯興還多, 只此春風亂白髮, 渠自生來吾奈何.”

64) “느 | 언즈 | 無信히여 님을 속엇관드 |, 月到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느 |, 秋風에 지는 님소르 | 야 느 | 들 어니 흐리오”(황진이) → “何曾妾無信, 乃與君相欺, 深夜遠來意, 而君諒不知, 鳴風落葉本無情, 渠自爲聲妾何爲.”

65)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359면 참조.

66) 任珽, 「鱗方曲」, 『巨齋遺稿』; 征馬臨去嘶, 情人摻袂啼, 夕陽度西嶺, 歸路千里餘, 憑君莫挽我, 且駐咸池暉.

67) 申緯, 「小樂府四十首」, 『申緯全集』3집, 태학사, 1983, 1193~1194면; 欲去長嘶郎馬白, 挽衫惜別小娥青. 夕陽冉冉銜西嶺, 去路長亭復短亭.

68) 任東權, 『韓國民謠史』, 민음사, 1964, 139면. “말은 가자고 네굽을 치는데, 정든 님 붙잡고 만단 정화하네.”

69) 李東歡, 앞의 논문 39~40면 참조 및 인용.

소들의 복합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壬丙 兩亂에 보여진 기층 민중의 역량으로, 그들에 대한 양반사대부의 의식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의 사대부들에게 기층민은 대체로 教化·養育 혹은 統制·搾取의 대상으로 의미되었지만 전란 중에 보여진 기층민의 저력이 그들의 의식의 변화를 낳게하였다. 그들은 기층민의 저력과 그 근원에 대한 탐색에 이어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관심의 표명으로 나타난 것이 時調·民謠·雜歌 등의 한역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로 계속 이어져 少論系 詩脈의 一條로 파악할 수 있는 南九萬·朴世堂·朴泰輔·申維翰·任珽·李宗城·李裕元·李裕承 등의 民謠 혹은 俗言詩·時調의 漢譯과 民謠風의 한시 창작으로 이어져 朝鮮後期 詩史의 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 한가지는 17세기 이후 고대 문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復古의 文風에 의해 『詩經』을 비롯한 고대문학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그것을 시대적 현실에 맞게 응용하려는 움직임으로 民謠風의 한시 창작이 나타나게 된 듯하다.

나머지 한가지는 朋黨政治로 인하여 이전의 동질집단이던 西인들이 老少로 분리되면서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정권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16세기에 그들은 士林으로서 執權勳舊派에 대한 이념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도덕적인 이상정치를 펴고자 하였다. 그러나 목표가 달성되자 老·少論으로 분파 하여 君子 대 小人, 眞과 僞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正統性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학에서도 眞·僞를 따지는 움직임이 등장하여 마침내 우리의 것, 朝鮮의인 것에 대한 가치를 自覺하게 된 것이다. 老·少論 양자는 眞實한 作風을 주장하여 天機·性情·天然 등을 특징적 어휘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창작의 審美 境界에서 양자는 차이를 나타냈다.<sup>70)</sup> 이러한 창작 기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18세기 이후의 문학활동에서 素朴과 簡潔을 주로

70) 앞의 내용 참조.



하는 소론계와 尖新과 奇譎을 추구한 노론계의 문학창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V. 結論

본 논문은 少論系 文學理論의 史的 展開를 파악하는 연구의 일단으로 그 대표자인 藥泉 南九萬의 文學理論을 고찰하였다.

尹宣舉의 碑文 사건이 빌미가 된 老少論의 분열 양상은 조선후기의 정치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前者가 宋時烈을 주축으로 하는 朱子主義의 墨守와 擁護를 나타낸 반면 後者는 대체로 實用性的의 중시 차원에서 朱子學에 대한 批判과 아울러 陽明學·老莊學 등에 대한 사상적 개방의 경향을 특징으로 하였다.

문학면에서는 老少論의 각 黨派에 속한 문인들 대부분이 17세기의 復古主義가 노정한 模倣과 剽竊의 단점을 비판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들이 추구한 道文論, 구체적인 創作 技巧, 創作 典範의 設定에 있어서는 집단간 혹은 개인간의 편차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鄭斗卿에 대한 평가<sup>71)</sup>이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요인이 조선후기 작가의 문학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은 약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약천은 조선 최초의 陽明學 수용자로 거론되는 南彥經이 從高祖이다. 또한 그의 집안과 절친한 張維나 崔鳴吉 一門 역시 양명적 학풍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남인 朴世堂의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경향과 老莊學으로의 경도를 참고할 때 그의 학문 경향이 당시의 일반 사대부들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질 것으

71) 格調와 氣象을 중시하는 少論系의 南九萬·南鶴鳴·南克寬·崔錫鼎·崔昌大·朴世堂·朴泰輔·吳道一·朴世采 등은 鄭斗卿을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에 시에서의 性情의 발로와 學力을 중시한 金昌協·申靖夏·申昉·金春澤·李宜顯·李德懋 등은 朴間을 높이 평가하였다.

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은 그가 관리로 재직할 때, 政務의 처리에서 民生の 安定과 實效와 實用을 거듭 강조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나는 非事實的이거나 虛偽의 요소들 즉,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의 실재 여부· 涇水의 위치· 眞番의 경계· 首陽山의 위치에 대해 다양한 전적을 섭렵하고 考證하여 實證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학문태도는 이후 조선후기의 역사지리 연구에 대한 考證的 學風과의 연계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평할 수 있다.

약전은 부친인 南一星에게 주로 학문을 전수 받고, 李明漢과 尹宣擧 등에게 수학하였다. 교유 인물로는 朴世堂· 朴世采, 李敏叙· 李敏迪 형제, 李世華, 尹拯, 吳道一· 柳尙運, 尹趾完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약전의 교우관계가 黨派 뿐 아니라 인척간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는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黨派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대표 제자로 거론되는 崔錫鼎· 崔奎瑞· 朴泰輔 역시 少論의 대표적 인물임을 볼 때 조선후기 문학이론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黨派’라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약전은 시대에 따른 文章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직시하여, 후대의 문장이 道의 體現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망각한 채 摹擬와 거짓된 修飾을 일삼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文’의 개념을 ‘道의 體現’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견해에서 벗어나 ‘文藝’의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修身· 經術 등의 목적의 달성에 있어 이러한 文과 道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道文相須論’을 전개하였다.

창작에서 약전이 중시한 것은 ‘自得之妙’ 즉 ‘創新’이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典範의 설정과 오랜 기간에 걸친 精審한 學習, 靈感과 直觀的 理解가 어우러진 순간의 ‘自得’을 강조하였다. 약전은 法古와 創新에 있어서 개인적 취향에 따른 極端的 追求를 지양하여 折衷的 태도를 취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 역시 法古와 創新에 대해 因果論적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道文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보편

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의식은 상당히 전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약천은 鄭斗卿·金得臣 등이 일반적인 學唐의 풍조를 탈피하여 漢魏 盛唐詩를 모범삼아 『詩經』을 典範삼고 漢魏古詩와 樂府詩의 가치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창작에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약천은 性情의 자연스런 表出, 國政經營의 補益, 개인정서의 진솔한 표현으로서 文의 가치를 인정하여 전통적인 溫柔敦厚의 詩教를 재인식하고 『시경』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 결과로 古體詩와 歌行體, 樂府 등에 관심을 기울임과 아울러 우리의 民謠와 時調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약천은 忠君·歎老·愛情·別離·婦女怨慕·田家閑居 등 보다 다양한 제재의 時調와 民謠를 漢譯한 「鬪方曲」을 통하여 이 시기의 일부 사대부들의 문학작품에 엿보이는 저층문화 이해의 시도 즉, 인간의 普遍의 情緒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경향을 추동하게 한 것은 壬丙 兩亂에 보여준 기층 민중의 역량과 17세기 이후의 復古的 文風의 영향으로 인한 고대 문학의 가치 再考, 朋黨政治의 영향 등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 藥泉 南九萬의 學問思想과 文學論이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문단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켜 이후에 나타나는 朝鮮風의 文學創作의 始原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顯宗實錄』, 朝鮮王朝實錄 V. 36

王夫之, 『薑齋詩話』

任 珽, 『巨齋遺稿』

- 申 緯 『申緯全集』, 태학사, 1983.
- 金邁淳 『臺山全書』, 계명문화사, 1985.
- 尹舜舉 『童土集』, 韓國文集叢刊 V.100, 民族文化推進會.
- 崔昌大 『昆侖集』, 韓國文集叢刊 V.183, 民族文化推進會.
- 崔奎瑞 『艮齋集』, 韓國文集叢刊 V.161, 民族文化推進會.
- 南克寬 『夢巖集』, 韓國文集叢刊 V.209, 民族文化推進會.
- 朴世堂 『西溪集』, 韓國文集叢刊 V.134, 民族文化推進會.
- 金宗直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V.12, 民族文化推進會.
- 尹文學 『石湖遺稿』, 韓國文集叢刊 V.105, 民族文化推進會.
- 尹宣舉 『魯西遺稿』, 韓國文集叢刊 V.120, 民族文化推進會.
- 南九萬 『藥泉集』, 韓國文集叢刊 V.131~132, 民族文化推進會.
- 南鶴鳴 『晦隱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V.2389, 景仁文化社.
- 
- 任東權 『韓國民謠史』, 민음사, 1964.
-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 崔永成 『韓國儒學思想史Ⅲ』, 亞細亞文化社, 1995.
- 尹南漢 『朝鮮時代의 陽明學 研究』, 集文堂, 1982.
- 安大會 『18세기 韓國漢詩史 研究』, 소명출판, 1999.
-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0.
- 李鍾默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 姜信燁 「南九萬의 國防思想」, 『民族文化』 14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 金英珠 「昆侖 崔昌大의 修辭論 研究」, 『동방한문학』 24집, 동방한문학회, 2003.
- 朴仁鎬 「南九萬과 李世龜의 歷史地理研究」, 『歷史學報』 138집, 역사학회, 1993.
- 姜信燁 「南九萬의 政治思想」, 『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歷史學論叢』, 민

족문화사, 1993.

李東歡,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攬頭」, 『韓國漢文學』 3·4  
합집, 한국한문학회, 1978.

투고일 2003. 6.19 심사시작일 2003. 7.7 심사완료일 2003. 7.22

*Abstract*

## A study of the theory of Yhak-cheon(藥泉) Nam Ghu-mann(南九萬)

Kim, Young-ju

Yhak-cheon(藥泉) Nam Ghu-mann(南九萬, 1629~1711)'s ancestor, Nam Yoen-geyong(南彦經) is the first scholar who accommodate 'a philosophy of Wang Yang-ming(陽明學)' in the Choson dynasty. He is very friendly with Jhang you(張維) and Choi Myeong-geel(崔鳴吉) family. They also pursue 'a philosophy of Wang Yang-ming(陽明學)'. His wife's brother, Park Se-dang(朴世堂) criticises the useless of the doctrines of Chu-tzu(朱子學) and seeks Taoism's learning(老莊學). In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we regard his learning tendency as differing from other scholars in the same age. This feature was confirmed by the emphasis on a practical effect and utility toward works. He studies ancient korean history from a historical research and national standpoint. In the result, his studying tendency differs from the scholars in the 17th century and was connected to 'a realistic school(實學派)' of the latter part of the choson dynasty.

Yhak-cheon(藥泉) studies from his father, Nam Yil-seong(南一星), Lee Myeong-han(李明漢), Yhun Seon-geo(尹宣舉), and etc. He makes friends with Park Se-dang(朴世堂) · Lee Min-seo(李敏敍) · Lee Min-jeok(李敏迪) · Liu Sang-Yeun(柳尙運) · Oh Doe-yil(吳道一) · Yeun geong(尹拯), and etc.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his making friends is that it made up with an academic clique(學派), a political

party(黨派). The executive of his disciples are Choi Seok-jeong(崔錫鼎) · Choi Gue-seo(崔奎瑞) · Park Tae-bo(朴泰輔), who were the executive of 'So-ron(少論)'. So, 'a political party(黨派)' and 'a academic clique(學派)' are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study of the literary theory of the latter term in Choson dynasty.

Yhak-cheon(藥泉) looks straight at the change of the sentence following the age, criticizes the tendency of the imitation and the rhetorical flourish of those days. Through the reexplicating of 'Mun(文)', he suggests 'the necessity of Doe(道) and Mun(文)', 'Doe-mun-sang-suh-ron(道文相須論)'.


In writing a creative work, he makes much of 'Jha-deok-jee-myo(自得之妙)', 'Chang-sin(創新)'. For this, he emphasises on the selection of the literary model, the complete practice, the action of the inspiration and the intuitional comprehending. Between 'Beob-goh(法古)' and 'Chang-sin(創新)', he sublates the excess studying of one of them, and insists having the negotiational attitude. But in the relationship of them, grasping the point with the law of causality is his limit.

Yhak-cheon(藥泉) admires Jeong Due-geyong(鄭斗卿) and Kim Deok-shin(金得臣), the reason why is that they follow the example of the poem of 'Han(漢)' · 'Wee(魏)' · 'Seong-dang(盛唐)' · 'Song(宋)', finds out the worth of 'a Ahk-buh(樂府詩)' and reflects on the creative work.

Yhak-cheon(藥泉) admits the worth of 'Mun(文)' for the reason of the natural expression of 'Seong-jeong(性情)' and the aid for the affairs of state. He emphasises on the 'Ohn-you-don-hue(溫柔敦厚)', and newly recognize teachings of 『Shi-goyong(詩經)』.

In the result, he was concerned about a 'Go-che-si(古體詩)' and 'a Ahk-bhu(樂府)'. And he has an afresh understanding of a korean folk song(民謠) and a shi-jo(時調). Through the various theme, loyalty and love of people(忠君愛民), seperation(別離), women's reproaching and longing(婦女之怨慕), a sigh over an old(歎老), and etc. He shows his attitude for the culture of the masses, the interest about human universal emotion. It is made up of the masses's capacity which was showed in the Yim-beong-yang-nan(壬丙兩亂), recognizing anew of the worth of an ancient literature, a clique goverment by the influence of reactionism in the 17th century.

In conclusion, Yhak-cheon(藥泉)'s learning and literary theory was meant as having a part of the source of a creative work of 'the mode for choson(朝鮮風)'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a national standpoint, a realistic school, an academic clique, a political party, Doe-mun-sang-suh-ron(道文相須論), Jha-deok-jee-myo(自得之妙), Chang-sin(創新). the natural expression of Seong-jeong(性情), Ohn-you-don-hue(溫柔敦厚), newly recognize teachings of 『Shi-goyong(詩經)』, an afresh understanding of a korean folk song(民謠) and a shi-jo(時調), understanding for the culture of the masses, the interest about human universal emotion, a part of the source of a creative work of the mode for choson(朝鮮風)



##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研究

김 영 주

본 논문은 少論系 文學理論의 史的 展開를 파악하는 연구의 일단으로 그 대표자인 藥泉 南九萬(1629~1711)의 文學理論을 고찰하였다.

藥泉 南九萬은 조선 최초의 陽明學 수용자로 거론되는 南彦經이 從高祖이며, 그의 집안과 절친한 張維나 崔鳴吉 一門 역시 양명적 학풍을 추구하였다. 또한 처남인 朴世堂의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경향과 老莊學에 대한 경도를 참고할 때, 그의 학문 경향이 당시의 일반 사대 부들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질 것으로 이해된다. 이점은 그가 관리로 재직할 때, 政務의 처리에서 民生의 安定과 實用을 거듭 강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대해 民族主義의이면서도 考證的인 입장에서 연구하여 17세기 이전의 학자들의 연구경향과 차이를 나타내면서 조선후기의 실학적 연구경향에 접맥되는 면모를 나타냈다.

약전은 부친인 南一星에게 주로 학문을 전수받고, 李明漢과 尹宣擧 등에게 수학하였다. 교유 인물로는 朴世堂·朴世采, 李敏叙·李敏迪 형제, 李世華, 尹拯, 吳道一·柳尙運, 尹趾完 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약전의 교우관계가 인척간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는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黨脈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대표 제자로 거론되는 崔錫鼎·崔奎瑞·朴泰輔·李世龜 역시 少論의 대표적 인물임을 볼 때 조선후기 문학이론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黨脈’라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약천은 시대에 따른 文章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직시하여, 후대의 문장이 摹擬와 거저진 修飾을 일삼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文’의 개념을 ‘道の 體現’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견해에서 벗어나 ‘文藝’의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修身·經術 등의 목적의 달성에 있어 이러한 文과 道の 필요성을 절감하여 ‘道文相須論’을 전개하였다.

약천은 ‘自得之妙’ 즉 ‘創新’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典範의 설정과 오랜 기간에 걸친 精審한 學習, 靈感과 直觀의 理解가 어우러진 순간의 ‘自得’을 강조하였다. 약천은 法古와 創新에 있어서 개인적 취향에 따른 極端的 追求를 지양하여 折衷의 태도를 취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法古와 創新의 관계에 대해 因果論적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道文의 관계에 대한 당대의 보편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의식은 상당히 전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약천은 鄭斗卿·金得臣 등이 일반적인 學唐의 풍조를 탈피하여 漢魏 盛唐詩를 모범삼아 『詩經』을 典範삼고 漢魏古詩와 樂府詩의 가치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창작에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약천은 性情의 자연스런 표출, 國政經營의 補益, 個人 情緒의 眞率한 표현으로서 文의 가치를 인정하여 전통적인 溫柔敦厚의 詩教와 『詩經』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그 결과로 古體詩와 歌行體, 樂府 등에 관심을 기울임과 아울러 우리의 民謠와 時調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 忠君·歎老·愛情·別離·婦女怨慕·田家閑居 등 다양한 제재의 時調와 民謠를 漢譯한 「續方曲」을 통하여 이 시기의 일부 사대부들의 문학작품에 엿보이는 저층문화 이해의 시도 즉, 인간의 普遍의 情緒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경향을 추동하게 한 것은 壬丙 兩亂에 보여준 기층 민중의 역량과 17세기 이후의 復古的 文風의 영향으로 인한 고대 문학의 가치 再考, 朋黨政治의 영향 등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 藥泉 南九萬의 學問思想과 文學論이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문단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발전시켜

이후에 나타나는 朝鮮風의 文學創作의 始原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民族主義的 觀點, 實學派, 黨派, 少論, 道文相須論, 自得之妙, 創新, 性情的 表出, 溫柔敦厚, 『詩經』의 가치 재인식, 民謠와 時調의 가치 인식, 저층문화에 대한 이해, 보편적 情緒에 대한 관심, 朝鮮風의 始原